

## 청소년의 긴장원분석\*

정 현 속 정 문 자

상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이 발달적, 가족적,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긴장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이 느끼는 긴장원의 종류를 살펴보고, 이들 긴장원의 정도와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청소년의 연령과 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살펴 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 355명(남학생 236명, 여학생 119명)과 고등학생 398명(남학생 209명, 여학생 189명)으로 총 753명이다. 청소년의 긴장원은 McCubbin과 Patterson 그리고 Wilson(1982)의 Adolescent-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A-FILE)에서 문항을 일부 선정하였으며,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문항을 추가하여 6개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족내의 긴장,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긴장, 학교 생활에서의 긴장, 동료 관계에서의 긴장, 신체적 긴장, 학업에 관한 긴장의 6가지 유형의 긴장원이 청소년에게서 나타났으며, 이들 긴장원은 청소년의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긴장원에 따라 연령과 성의 영향력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긴장원과 청소년이 인지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제2의 성장기로 「질풍노도의 시기」, 「성장폭발기」, 또는 「일생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불리워진다. 따라서 이시기의 청소년은 자연적이고 발달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긴장에 대해 다른 시기보다 적응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동안 청소년이 접하는 외적 환경은 이러한 긴장적응과 해결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환경과

분위기는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긴장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은 정확이나 퇴학, 낙제, 친구와의 이별, 부모와의 논쟁(Cohen, Burt & Bjorck, 1987;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1993),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정기숙, 1993),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민(Rosenberg, 1965), 대인관계, 이성문제 및 공부(윤진, 최정훈, 1989; 이재창, 1983) 등 다양한 긴장원에 노출되어 있다.

\* 이 연구는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 연구의 일부임.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발달적, 환경적 긴장들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할 때 청소년은 비규범적인 행동이나 비행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긴장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정기숙(1993)에 의하면, 긴장은 청소년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생기는 긴장때문에 심리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긴장은 부모의 우울감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는 결혼생활의 갈등과 부모 역할기술의 비효율성을 야기시켜 청소년의 적응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Conger et al., 1992). 그러므로 청소년기동안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청소년기 동안의 긴장에 대한 연구는 그 폭이 좁으며, 특히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원에 대한 연구는 소수여서 그 결과를 아직 일반화할 단계가 아니며,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몇몇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의 종류를 주변환경과 관련지어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예, 윤진, 최정훈, 1989; 전귀연, 최보가, 1993). 그러나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발달에 다양한 가족적 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Grotevant & Cooper, 1985). 그러므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의 내용은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주요한 인적물적 환경인 가족, 동료, 학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긴장원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Rosenberg(1986)에 의하면 청소년기 여아는 자아 개념 중 신체적 의도

에 대해 남아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고등학생으로 전환 할 때 여아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Simmons와 Blyth(1987)도 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다(Gecas & Seff, 1990, 재인용). 우리나라의 윤진, 최정훈(1989)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남자 청소년보다 점수가 낮고,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점수가 낮았다. 이재창(1981)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에 의한 긴장은 학년간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윤진, 최정훈, 1989, 재인용). 즉,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연령구분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만 나누어 분석하고 있으며, 성과 연령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긴장원을 성과 연령을 함께 통제하여 긴장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실제 긴장원의 수준이나 빈도가 높다는 것이 청소년들이 그 긴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징상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원에 대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원보다 빈도는 적으나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긴장원의 정도와 청소년이 인지하는 긴장에 대한 영향력은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연구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상황속에서,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징과 학교와 동료를 포함한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등에서 발생되는 긴장원의 종류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긴장원에 따라 실제 긴장원의 정도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긴장원에 대한 영향력을 연령과 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 나라 청소년의 긴장원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의 긴장원과 청소년이 인지하는 긴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긴장원의 정도와 청소년이 인지하는 긴장에 대한 영향력은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 355명(남학생 236명, 여학생 119명)과 고등학생 398명(남학생 209명, 여학생 189명)으로 총 753명이다. 이들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서울시의 3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4개반, 2학년 6개반, 고등학교 1학년 4개반, 2학년 4개반이 무선적으로 표집되어 총 16개반에서 801명이 표집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편부모인 가족과 재혼가족의 청소년 48명을 제외한 총 753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2종류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청소년과 이들 부모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청소년의 긴장원과 영향력에 관한 질문지이다.

청소년의 긴장원은 McCubbin과 Patterson 그리고 Wilson(1982)의 Adolescent-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A-FILE)에서 문항을 일부 선정하였으며,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면접을 통해 문항을 추가하여 6개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긴장원의 척도는 총 70문항으로 가족내의 긴장,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긴장, 학교생활에서의 긴장, 동료관계의 긴장, 신체적긴장, 학업에 대한 긴장의 6개 하

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내 긴장은 총 19문항으로 부모의 싸움, 구타, 부모의 실직, 친척간의 불화, 부모의 이혼등의 가족내적인 관계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긴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적합치도 신뢰도 지수는  $\alpha=.73$ 이다.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긴장은 15문항으로 부모와의 대화부족, 부모의 지나친 간섭, 구타, 무관심, 지나친 기대, 이해부족 등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으로, 신뢰도계수는  $\alpha=.79$ 이다.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긴장은 9문항으로 선생님의 이해부족, 교사와의 갈등, 선생님의 체벌, 학교의 지나친 단속 등 교사 및 학교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계수는  $\alpha=.70$ 이다. 동료관계에 의한 긴장은 친한 친구의 죽음, 불량배로부터 공격당함, 동료들간의 시기, 친한 친구가 없음, 이성친구가 없음 등 동료관계에서 오는 긴장으로 12문항이며, 신뢰도계수는  $\alpha=.60$ 이다. 신체적긴장은 여드름으로 인한 고민, 키가크다/작다, 뚱뚱하다/말랐다, 신체허약등의 6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alpha=.59$ 이다. 학업에 대한 긴장은 8문항으로 공부에서 오는 긴장의 정도로 측정하며, 신뢰도는  $\alpha=.60$ 이다.

각 문항은 해당사항이 있다(1), 없다(0)로 응답하며 높은 점수는 각 영역의 긴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긴장원에 대해 청소년이 인지하는 영향력은 위의 척도 문항 각각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영향의 정도로 전혀 없다(1)에서 매우 크다(4)의 4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점수는 각 긴장원에 대해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는 것이다.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1993년 11월 10일에서 1994년 1월 15일에 걸쳐 연구자 2명과 연구보조원 3명이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사용하였다. 각 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인 분석과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Cronbach의 내적합치도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 2인 청소년들의 긴장원의 정도와 이에 따른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며, 두변인의 관계는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청소년 753명 중 남학생이 445명이며 여학생 308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중학생이 355명(중1년생, 150명 ; 중2년생, 205명)이며 고등학생이 398명(고1년생, 184명 ; 고2년생, 214명)이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은 전체의 67%이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69%, 아버지의 88%이상이고졸이상이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 및 간부가 60%이며, 서비스직이 20%이다. 어머니는 26%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보면 중류층에 속한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빈도(명)	% (n=753)
성별	남	445 59.1
	여	308 40.9
학년	중1	150 19.9
	중2	205 27.2
	고1	184 24.5
	고2	214 28.4
종교	없다	246 32.7
	불교	111 14.7
	기독교	289 38.4
	천주교	98 13.0
	기타	10 1.3

	아버지	어머니	
	빈도 (%)	빈도 (%)	
부모의 중졸 학력	중졸	114 12.0	228 31.0
	고졸	339 46.2	384 52.0
	대졸	281 41.8	127 17.0
부모 직업	전문직	28 4.0	4 1.0
	교사/간호사	16 2.3	9 1.2
	기업체간부	201 28.5	12 1.6
	회사원/공무원	179 25.4	38 5.2
	서서비스직	139 19.7	97 13.2
	기타/가정주부	135 19.1	570 77.8
	무직	7 1.0	

표 2. 청소년의 긴장원에 따른 긴장의 양과 영향력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가족내의 긴장	부모와의 긴장	학교생활 긴장	동료관계의 긴장	신체적 긴장	학업에 대한 긴장
긴장의 양	.17 (0.14)**	.41 (0.23)	.32 (0.21)	.23 (0.16)	2.36 (0.26)	.50 (0.25)
영향력	1.57 (0.69)	1.88 (0.65)	1.71 (0.65)	1.61 (0.65)	1.74 (0.67)	2.12 (0.72)
긴장의 양과 영향력의 상관관계	.29	.51	.46	.36	.54	.60

1) \*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 ( )안은 표준편차

2. 긴장원의 종류와 청소년이 인지하는 긴장에 대한 영향력

연구문제 1인 청소년들의 긴장원 파악은 연구도구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문헌조사와 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이 인지하는 긴장원의 종류는 6가지로 분류되었다. 긴장원의 종류는 가족내의 긴장,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긴장, 학교생활에서의 긴장, 동료관계에 의한 긴장, 신체적 긴장, 학업에 대한 긴장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의 전체적인 양상은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학업에 관한 긴장( $X=.50$ ,  $SD=.25$ )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 $X=.41$ ,  $SD=.23$ )이 많았으며, 신체적 긴장과 학교생활에서의 긴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내의 긴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인 긴장원과 청소년이 인지하는 긴장에 대한 영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분석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긴장원의 정도와 영향력의 상관계수는 학업에 대한 긴장 ( $r=.60$ ), 신체적 긴장( $r=.54$ ), 부모와의 관계( $r=.51$ ), 학교생활의 긴장( $r=.46$ )의 순으로 그 관계가 강하다. 그러나

가족내의 긴장과 동료관계에서 받는 긴장의 양과 그로 인한 영향력은 관계의 정도가 중간수준이다. 따라서 긴장원의 정도와 그 긴장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영향력의 정도는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연령과 성에 따른 긴장원의 종류와 청소년이 인지한 긴장에 대한 영향력

연구문제3을 분석하기 위하여 긴장원의 종류와 청소년이 인지한 긴장에 대한 영향력을 연령과 성에 따라 이원변량분석 하였다. 가족내의 긴장( $F=10.2$ ,  $p<.0001$ )과,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긴장( $F=20.38$ ,  $p<.001$ ), 학업에 대한 긴장( $F=27.7$ ,  $p<.001$ )은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다른 긴장원들은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 긴장원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지한 영향력의 성과 연령에 따른 이원분석결과 가족내의 긴장( $F=6.1$ ,  $p<.0001$ )과,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긴장( $F=8.06$ ,  $p<.001$ ), 학업에 대한 긴장( $F=20.78$ ,  $p<.001$ )에서만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가족내의 긴장과 부모와

표 3.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긴장의 양과 영향력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753)

	가족내 긴장			부모와의 관계			학업에 대한 긴장		
	긴장의 양	영향력	r	긴장의 양	영향력	r	긴장의 양	영향력	r
중1	.13 A*	1.37 A	.48	.33 A	1.66 A	.58	.40 A	1.81 A	.73
	(.13)**	(.58)		(.21)	(.64)		(.24)	(.70)	
중2	.15 A	1.63 B	.21	.35 A	1.84 A	.53	.42 A	2.01 B	.58
	(.13)	(.74)		(.23)	(.70)		(.27)	(.75)	
고1	.20 B	1.56 B	.35	.45 B	1.91 B	.47	.60 B	2.24 C	.54
	(.14)	(.59)		(.22)	(.62)		(.21)	(.69)	
고2	.19 B	1.66 B	.21	.48 B	1.99 B	.41	.55 B	2.35 C	.43
	(.15)	(.75)	(.22)	(.62)	(.22)	(.65)			

\* 같은 문자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음.

\*\* ( )안은 표준편차

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 학업에 대한 긴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인지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영향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학업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한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장의 양과 영향력과의 관계는 중1학년의 경우 학업에 대한 긴장감에서 상관이 .7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4. 청소년의 성에 따른 긴장의 양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부모와의 관계		학업에 대한 긴장	
남	.39 (.22)**	A*	.46 (.25) A
여	.44 (.24)	B	.55 (.23) B

\* 같은 문자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음.

\*\* ( )안은 표준편차

연령과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결과 성에 따른 주효과는 부모와의 관계( $F=5.0, p<.01$ )와, 학업에 대한 긴장( $F=9.24, p<.05$ )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학업에 대한 긴장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높게 인지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과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생활에서의 긴장( $F=8.9, p<.001$ ), 동료관계에서의 긴장( $F=3.2, p<.05$ ), 신체적 긴장( $F=2.75, p<.05$ )은 연령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들 긴장원에 대해 청소년이 인지한 영향력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긴장( $F=4.57, p<.01$ ), 동료관계에서 긴장( $F=3.13, p<.05$ ), 신체적 긴장( $F=2.80, p<.05$ )에서만 연령

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 그림2, 그림3과 같다.

표 5와 그림 1에 의하면 학교생활에서의 긴장은 중1, 고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으며, 중2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의 긴장의 영향력은 중학교 1학년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 $r=.73$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긴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와 표 5에 의하면 동료관계에서의 긴장은 남녀 모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커졌으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친구에 대한 긴장이 높았다. 동료관계로 인한 긴장에 대한 영향력은 고등학교 2학년 여아가 가장 높았으며 ( $r=.62$ ), 다른 학년은 중간 정도 관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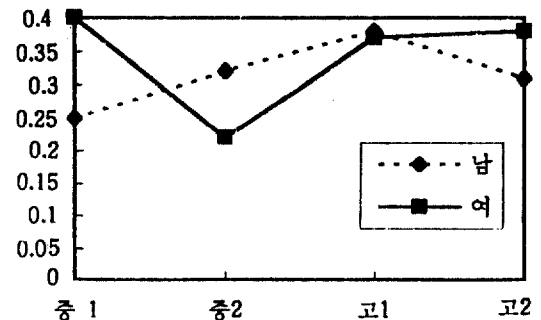


그림 1 성과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긴장 수준

그림 3과 표 5에서 신체적 긴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여 여학생의 경우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남학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나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체적 긴장의 양과 영향력의 상

표 5. 청소년의 연령과 성에 따른 긴장의 양과 영향력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학교생활에서의 긴장			동료관계에서의 긴장			신체적 긴장		
	긴장의 양	영향력	r	긴장의 양	영향력	r	긴장의 양	영향력	r
중1학년									
남	0.25 B (.20)	1.57 B (.67)	.73	0.18 C (.14)	1.40 A (.07)	.42	0.24 B (.21)	1.47 B (.07)	.60
여	0.40 A* (.25)**	1.84 A (.80)	.73	0.20 (.16)	1.60 (.09)	.19	0.42 A (.25)	1.83 A (.09)	.66
중2학년									
남	0.32 D (.22)	1.82 C (.78)	.57	0.19 (.15)	1.67 C (.06)	.30	0.29 B (.28)	1.79 C (.06)	.41
여	0.22 B (.19)	1.55 B (.54)	.64	0.20 A (.14)	1.52 (.08)	.36	0.42 A (.25)	1.78 A (.08)	.63
고1학년									
남	0.38 C (.18)	1.67 (.54)	.59	0.24 (.14)	1.51 (.07)	.46	0.40 D (.28)	1.66 A (.07)	.62
여	0.37 (.23)	1.70 (.60)	.50	0.24 B (.16)	1.64 B (.07)	.29	0.44 A (.24)	1.88 A (.07)	.59
고2학년									
남	0.31 D (.17)	1.77 C (.65)	.29	0.24 B (.16)	1.77 C (.06)	.33	0.31 B (.24)	1.79 C (.06)	.32
여	0.38 C (.22)	1.68 (.54)	.61	0.33 (.18)	1.65 B (.06)	.62	0.47 A (.25)	1.80 A (.07)	.75

\* 같은 문자 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음.

\*\* ( )안은 표준편차

관계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r=.75$ 로 가장 높으며, 중학교 2학년 남아와 고등학교 2학년 남자는 다소 낮은 ( $r=.41$   $r=.32$ ) 영향력을 보이나 대부분 학생들이 신체적 긴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긴장원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연구방법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내의 긴장,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긴장, 학교 생활에서의 긴장, 동료 관계에서의 긴장, 신체적 긴장, 학업에 관한 긴장의 6가지 유형의 긴장원이 청소년에게서 나타났으며, 이들 긴장원은 청소년의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들 긴장원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긴장원 영향력은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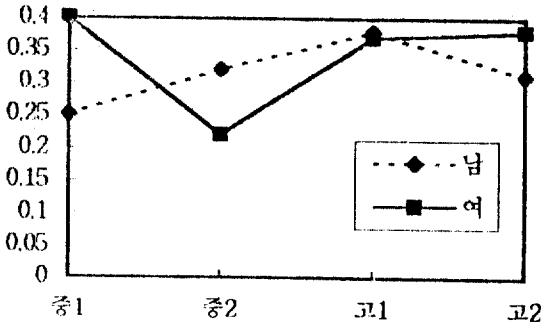


그림 2. 성과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긴장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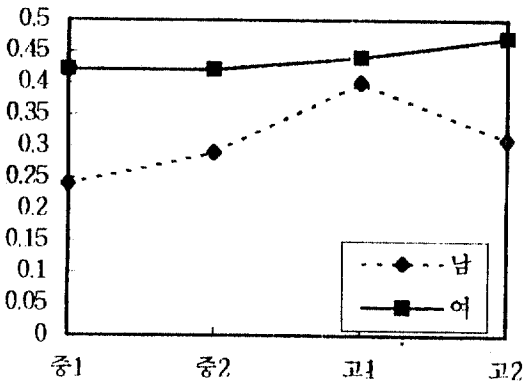


그림 3. 성과 학년에 따른 신체적 긴장수준

인 긴장원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성과 차이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신체적 긴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Rosenberg(1965), Simmons 와 Blyth(1987, Gecas & Seff, 1990, 재인용)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긴장원 중 학업에 관한 긴장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이 가장 높아 선행연구들(이재창 외, 1981; 윤진, 최정훈, 1989)과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긴장의 정도와 영향력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의 긴장이 높으면 영향력도 따

라서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두 영역의 긴장 정도와 영향력간의 상관관계는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재창과 동료들(1981)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학업에 관한 긴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연구방법의 차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긴장원의 정도와 영향력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비록 고등학생의 학업에 관한 긴장은 높으나 그 영향력은 중학생에 비해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은 이미 학업에 대한 긴장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6가지 영역의 긴장원에 따른 긴장점수와 영향력간의 상관관계수는  $r=.21$ 에서  $r=.73$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긴장의 종류에 따라 긴장의 정도와 영향력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긴장의 정도가 높다고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의 정도와 영향력을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신체적인 긴장에서도 나타났다. Rosenberg(1965)는 고등학생으로 전환할 때 여아가 특히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신체적 긴장은 연구대상의 모든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학생이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결과로 유추된다. 여학생이 느끼는 신체적 긴장의 양과 영향력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 $r=.59 - r=.75$ ) 이런 가정에 설득력을 갖게 한다. 반면, 이러한 차이는 신체적 긴장에 따른 조작적 정의의 차이



차이는 신체적 긴장에 따른 조작적 정의에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긴장원에 대한 영향력은 긴장의 양과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긴장,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 학업에 관한 긴장, 학교생활에서의 긴장은 긴장의 양에 따라 영향력이 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친구와의 관계 및 가족내의 긴장은 긴장의 양에 비하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구체적으로 학교 생활에서의 긴장의 영향력은 중학교 1학년생이 가장 높았으며, 동료관계에서의 긴장의 영향력은 고등학교 2학년 여아가 가장 많이 받았다. 또한 신체적 긴장의 경우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하나,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각각의 시기와 성에 따라 긴장의 정도가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영향력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둔 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점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긴장의 정도와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중3과 고3을 제외한 결과이므로 전환기 과정에서의 영향을 유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을 감안할 때 입시는 청소년 혼자만의 문제라기 보다 중요한 가족적 사회적인 사건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중3년생과 고3년생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윤진(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방향. *청소년학 연구*, 1(1), 17-26.  
윤진·최정훈. (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문제

와 그 대처 행동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2(1), 16-35.

- 이재창 외. (1981). 청소년 의식 구조 및 형성 배경. *한국 교육 개발원*.
- 이정우·김규원. (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유형 및 만족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47-159.
- 정기숙(1993). 소년비행의 동향과 가족 병리와 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43-155.
- Cohen, L.H., Burt, C.E., & Bjorek, J.P. (1987). Life stress and adjustment :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d by young adolescent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83-592.
- Conger, R.D., Conger, K.J., Elder, G.H., Lorenz, F.O., Simons, R.L., & Whitbeck, L.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D., Conger, K.J., Elder, G.H., Lorenz, F.O., Simons, R.L., & Whitbeck, L.B.(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06-209.
- DuBois, D.L., Feler, R.D., Brand, S., Adan, A.H., & Evas, E.G.(1992). A per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Gecas, V., & Seff, M.A.(1990). Families and adolescent :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 Grotevant, H.D., & Cooper, C.R.(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Leigh, G., & Peterson, G.(1986). Adolescent in family relationships. In G.Leigh & G. Peterson(Eds.) *Adolescent*(pp.2–11). Cincinnati : South–Western Pub.
- McCubbin, H., Olson, D., Patterson, J., & Wilson, C.(1982). FILE ;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 University of Minnesota.
- Newman, B.M. (1979). Coping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2, 255–262.
- Pearlin, L.I., Menaghan, E.G., Lieberman, M. A., & Mullan, J.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osenberg,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iffge–Krenke,I. & Shulman,S. (1990). Coping style in adolescenc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351–377.

## **Exploration of Adolescents' Stressors**

Hyunsook Chung and Moon Ja Chung

Sang-Myung Women's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dolescents' stresso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55 middle school and 398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t-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 (McCubbin, Patterson, & Wilson, 1981) was modified to measure adolescents' stressful life events for the last few months. This scale includes six life events in the areas of family (19 item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15 items), relationship with friend (12 items), school and teachers (9 items), physical aspect (6 items), and academic aspect (8 items). The reliability of each area was .73, .79, .70, .60, .59 and .60, respectively. Data analyses were done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aired t-test, common factor analysis. For construct validity and dimensionality of all Scales, factor analysis of both principal factoring with prior communality and varimax rotation were performed. A two-way ANOVA was conducted to compare groups to find out any sex and age differences in the mean of each subscales of stresso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types of stressors in terms of adolescents' age and sex. Specifically, the most dominant stressors in adolescents were strains from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from academic area. Second, girls had more strains from both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cademic area than boys. Third, effects of stressors varied according to adolescents' age.